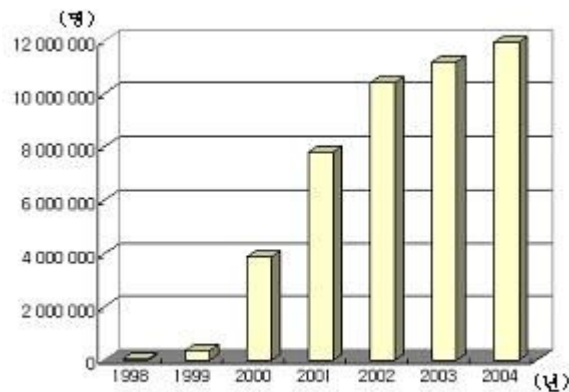


## 2007 학년도 수시 1 학기 외대프런티어 | 전형 논술(인문계) 기출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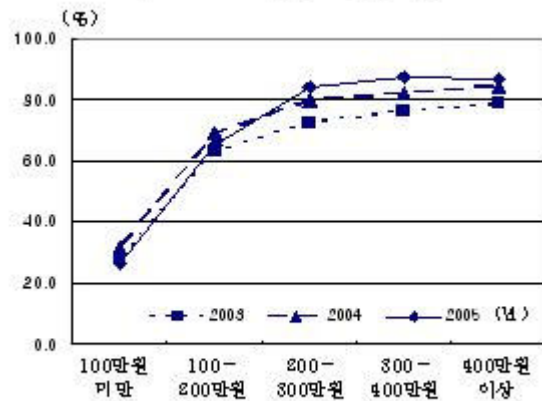
**[문제 1]**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자료 1>과 <자료 2>에 담긴 현상과 의미를 설명하고, 이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논술하시오. (750~800 자, 125 점)

**[문제 2]**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요지를 응용하여 <제시문 다>의 사회역사적 의미를 현대적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750~800 자, 125 점)

**<자료 1> 인터넷 가입자 수**



**<자료 2> 소득별 인터넷 이용률**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2005)

### <제시문 가>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전통적 지식이 디지털 형태의 정보로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지식이 정보로 전환될 때에는 대개 의미의 굴절이 일어난다. 이런 까닭에 지식과 그 지식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한 정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지식과 정보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정보사회학자들의 설명을 요약하면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식’은 인간이 오랜 시간 동안 사유와 실천 활동을 통해 부여한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의미의 집적물이다. ‘정보’는 잠재적 수요자를 위해 지식에서 추출한 데이터의 기술적 가공물, 이를테면 지식을 요약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의미의 집적물이다. 또한 지식은 체계성과 복합성이라는 그 속성상 지적 훈련을 거친 엘리트만이 접근하고 획득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에 비해

디지털 형태로 전환된 정보는 대중의 접근을 수월하게 하고, 전달과 획득에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켜 주며, 저장과 가공을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인터넷이 학문 발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가 된 것은 그것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정보교환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편의성과 효율성이 제고된 정보사회가 반드시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정보의 경우 제공자와 사용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오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며, 그런 일은 실제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정보를 독점적으로 장악한 자가 특정한 목적에 이를 악용할 위험 역시 상존한다. 같은 물이라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는 것처럼, 정보의 활용에도 양면성이 있음을 잊지 말자.

#### <제시문 나>

현대를 대표하는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에 따르면, 플라톤 이후 과학의 정당화 문제는 권력의 정당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이를테면 ‘무엇이 (과학적으로) 참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가’를 결정하는 문제와 더 이상 무관하지 않다. 과학과 윤리학, 과학과 정치학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시대의 권력은 그 어느 시대의 권력보다 더 집요하게 과학적 지식, 나아가 정보 일반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싶어 한다. 특히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이후 이런 욕망은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리오타르의 말을 빌리자면, 정보화 시대에서 ‘지식에 관한 물음’은 필연적으로 ‘지배에 관한 물음’으로 귀결된다. 요컨대 오늘날 지식과 정보가 떠안은 진리와 윤리라는 이중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

#### <제시문 다>

대통령 각하, 마침내 드레퓌스가 군사 법정에서 풀려났다. 재판은 완전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적에게 국경을 열어 독일 황제를 노트르담 성당까지 안내한 반역자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 쉬쉬하며 재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민들은 대경실색한 채 온갖 풍문이 떠도는 이 무시무시한 드레퓌스의 배신 행위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물론 그들은 국가의 조치를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가혹한 형벌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비밀의 방에서 조심조심 물어야만 했던 그 말할 수 없는 것들, 전(全)유럽을

화염에 휩싸이게 할 수도 있다던 그 위험한 것들은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기상천외한 삼류 소설을 실화로 만들기 위해 국방부는 모든 것을 날조했습니다. 군사 법정에서 낭독된 기소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사실은 금방 드러납니다. 아!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기소장인지요! 이런 기소장으로 한 인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의의 극치입니다. 드레퓌스는 수개 국어를 구사합니다, 유죄. 그의 방에서는 위험한 서류가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죄. 그는 가끔 조상의 나라를 방문합니다, 유죄. 그는 근면하며 모든 것을 알고자 할 정도로 지식욕이 강합니다, 유죄. 그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유죄. 그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킵니다, 유죄. 얼마나 터무니없는 내용이며,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요! 대통령 각하, 목하 국방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예컨대 언론 캠페인, 흑색선전을 통해 드레퓌스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전진하고 있고, 아무 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에서야 ‘사건’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셈인데, 왜냐하면 오늘에서야 각자의 입장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햇빛이 비치기를 원치 않는 범죄자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햇빛이 비칠 때까지 목숨마저도 바칠 정의의 수호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드레퓌스를 부당하게 법정에 세운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참모차장, 기타 사건 관련자들을 공개적으로 고발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알지도 못하며, 단 한번 만난 적도 없으며, 그들에 대해 원한이나 증오를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회악의 표본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행위는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기 위한 한 영혼의 외침일 뿐입니다.

—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 대통령 펠릭스 포르 씨에게 보내는 편지』 —

####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120 분임.
  2. 답안에 문제 번호를 쓰고 한 칸 띄우고 시작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흑색 또는 청색 펜만을 사용할 것.